

깨달음 전하는 '릴레이 고승설법'

대구불교대 53선지식 친견-법왕사 백고좌 법회

관음·법전·정무·고산 스님 등 참석

평소 친견이 쉽지 않은 여러 고승대덕스님들을 접하고 법문도 들을 수 있는 법회가 대구에서 잇달아 열려 불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동화사 부설 대구불교대학의 53선지식 친견법회와 법왕사의 백고좌 법회가 바로 그것.

이같은 집중적이고 연속적인 매머드 법회를 통해 듣는 큰스님들께 사자하는 IMF관리체제를 어렵게 극복하고, 정치적인 혼란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요즘 불자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감로수이자 바른 신행의 길잡이가 되고 있다.

지난 2월20일 팔공산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제7회 대구불교대학 및 동대학 대학원(경전반) 1기 졸업

식을 거행한 대구불교대학(학장 법자, 중구 남산2동)은 〈화엄경〉 '법법계품'에 선재동자가 문수보살의 가르침에 따라 53인의 선지식을 차례로 방문하여 법을 묻고 도를 구하는 53선지식 친견법회를 매일 열고 있다.

지금까지 진제(동화사조실) 근일머드(부석사조실) 보성(조계총림법장) 관음(직지사 조실) 법전스님(해인총림법장)을 친견했고 오는 17일에는 前 조계종 총무원장 고산스님을 찾아 법문을 들을 예정. 불자들은 좀처럼 접하기 힘든 큰스님의 법문과 활(喝)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지순례도 겸할 수 있어 갈수록 참여자가

늘고 있다.

1월부터 계속 참가하고 있다는 한 보살은 "아흔이 넘은 관음스님께서 혼신의 힘을 다해 법문하실 때는 가슴 저미는 감동을 느꼈다"면서 "앞으로 한번도 안 빠지고 다들겠다는 원을 세웠다"고 말했다.

조계종 직할 포교단 법왕사(주지 실상, 수성구 과동)도 부처님출가일인 13일(음2월8일)부터 6월20일까지 백일간 매일 대덕스님을 초청하여 법회를 열어 백고좌법회(百高坐法會)를 봉행한다. 백고좌법회는 613년 신라 진평왕 때부터 나라와 백성의 평안을 위해 백일동안 백명의 고승을 초청해 법석을 마련했던 형사. 법왕사는 조선시대 이래 백이 끊긴 백고좌법회를 지난 94년 재연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백고좌법회에는 前조계종 총무원장 고산



스님을 비롯 정무 정락 보각스님 등이 초청돼 경륜론 삼장법문을 펼치게 된다. 또한 동국대학 불교학과 교수를 비롯한 재가 석학들도 초빙돼 수준높은 강의를 펼칠 예정으로 있어 불자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법왕사는 법회에 앞서 108참회기도도 병행하고 있어 불자들의 가행 정진에 도움을 주고있으며 회향일인 6월20일에는 대구실내체육관에

◇99년 11월 수석사에서 열린 대구불교대학 53선지식 친견법회에서 근일 큰스님의 법문을 경청하는 불자들.

종단소식

조계종

통도사박물관대 1기 수료
통도사박물관대(학장 법하)은 2월 18일 박물관 문화센터에서 박물관대 1기 수료식을 봉행했다. 통도사 주지 신허스님, 안종길 양산시장을 비롯 2백 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료식에서는 이무용씨를 비롯한 84명이 30강좌 1년 과정을 수료했다. (0523)382-1001

석왕사 종교회합 한마당
부천 석왕사(주지 영담)는 4일 오후2시 부천 성가병원 대강당에서 새천년맞이 종교 대화합 한마당 잔치를 펼친다. 불교 개신교 가톨릭 성직자와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라춤 및 나비춤(영산채보유자), 합창단, 사물놀이 공연 등이 펼쳐진다.

삼광한글학교 8회 졸업
삼광한글학교 개교 8주년 기념

대구종

종무원장·간부 연석회의
전국 시도 교구 종무원장 및 종단 종진간부 연석회의가 7일 오후 1시 서울 종무처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본산 선암사 성역화불사를 비롯 교구개혁과 통일불사,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과 앞으로의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 등이 논의된다. (02)745-2030

화천사 호스피스 모집
제주 화천사(주지 복해)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위로하고 간호하는 호스피스 봉사단을 22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064)721-2755

전대종

새싹어린이집 개원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윤덕)이 복지재단 인가후 종량구청으로부터 첫 수탁받은 새싹어린이집(종량구 상봉 2동 118-26)이 2월 21일 개원식(사진)을 가졌다. 개원식에는 전대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문득스님, 관문사 부주

종립학교 교직원 연수
교육원(원장 일정)은 서울 총인원에서 새 학기를 앞둔 종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각종 신행 연수를 실시했다. 2월 16~19일에는 종비향학 연수가, 21~23일에는 위대대 신입교사와 심인종 고, 진선여종 고의 신입교사 등 총 26명에 대한 연수가 있었다. (02)913-0751

미타사에 호국 위령탑

송강스님 건립...6·25전사자 매년 6월 추모제

서울 강서구 개화산 미타사(주지 승강)는 최근 강서구청, 주민들과 함께 50년 한국전쟁 당시 1,100여명의 국군이 전사한 미타사 인근(50m 지점)에 호국충혼위령탑을 건립했다. 미타사는 또 전사자와 생존자비를 건립하고 매년 6월 합동위령제를 지내기로 했다.

현재 미타사가 있는 개화산 자락은 1950년 6월30일 인민군에게 포위된 1사단 11, 12, 15연대 부대원들이 본부와 연락이 두절된 채 마지막까지 싸우다 전사한 지역이다.

이같은 사실은 전쟁이 끝난 뒤 이들 부대의 행방을 찾는 이가 없어 영원히 역사속에 사라질 뻔했

다가 93년 미타사 주지로 부임한 송강스님에 의해 밝혀졌다.

"꿈에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군인들의 환상을 자주 보았다"는 송강스님은 영가들의 한을 풀고 천도시키기 위해 국방부, 보존처 등 관계부처를 통해 사실조사를 한 끝에 1사단의 전사기록을 확인했다.

이번 위령탑 건립은 송강스님의 보시금 3천5백만원 등 1억3천여만원의 성금으로 세워져 동족상잔의 전쟁을 체험하지 못한 세대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미타사는 50년 한국전쟁 때 산화한 장병들을 위한 호국충혼 위령탑을 건립했다.

대구 연화선원 개원

주말 참선요가 무료강좌
요가를 통해 몸과 마음을 수련, 심신일여(心身一如)를 추구하는 참선요가 선원이 개원돼 관심을 끌고 있다. 9년 동안 참선과 요가를 수련해 온 자광 스님이 최근 대구시 동구 호곡2동에 개원한 연화선원이 그곳.

자광 스님이 가르치는 참선요가는 선방 스님들이 정진하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단련하는 수련법이다. 자광 스님은 미주 토요일 오후 3시 연화선원에서 참선요가 무료 공개강좌를 연다.

참선요가 수련의 본래 목적은 방을 다스리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일상생활이 불러온 일체의 온전치 않은 불균형 상태를 균형있는 본래의 상태로 돌이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053)751-8211 김재경 기자

교계 인재불사 개요

진각종립 위덕대 첫 졸업식을 불교·교육대학원 신설

진각종립 위덕대(총장 손재석, 경북 경주시 강동면)가 2월 22일 제1회 학위수여식(사진)을 거행하고 첫 졸업생을 배출했다.

조계종립 동국대에 이은 2번째 종립대학인 위덕대가 졸업생을 배출함에 따라 교계의 인재불사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으며 불교의 사회역할과 위상이 한층 제고될 전망이다.

위덕대는 이날 불교학과 컴퓨터제어공학과 반도체공학과 등 9개학과 162명의 학사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생 17명을 탄생시켰으며 수석은 평점 4.24점을 기록한 강영지씨(불교학과, 23세, 인턴부 4명)가 차지했다. 특히 17명의 졸업생을 낸 불교학과는 전원 취업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보여 화제를 낳기도 했다.

96년 9개학과 4백명의 입학 정원으로 개교한 위덕대는 현재 27개학과 3천5백명의 학생 정원으로 양적팽창을 기록했고 올해 일반대학원과 불교대학원, 교육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발전을 거듭해 왔다.

특히 일반대학원 불교학과 석사과정과 불교특수대학원이 신설되면서 밀교학 연구의 깊이를 더해졌으며 불교와 관련있는 동양문화연구의



진각종립 위덕대학교 학위수여식

독창적 발전에도 일조하게 됐다. 불교학과 졸업생들은 학계나 공중강교, 종립학교의 교편을 맡을 예정이며, 불교언론사 등에 진출해 불교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

경주와 포항, 울산의 점점에 위치한 위덕대는 지리상의 장점을 십분 활용, 한동대권 중심 대학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 아래 지난96년 제1차 대학발전10개년계획을 세운바 있다.

특히 환동해지역 학술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미국 Claremont McKenna College, 중국 중앙민족대학, 일본 벵부대학등과 학술교류협정을 체결하고 부설로 아시아·태평양연구소 등 4개연구소 설립했다. 또한 신라문화 연구를 위해 지난해 위덕박물관을 건립, 안계사지와 연화사지 등 절터2곳과 구석기시대 유물을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

은3월에는 중앙도서관 및 전산정보센터의 기능을 할 연건평2천8백52평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회담학술정보원 준공식을 봉행하고 내년2월에는 교내법당인 불교학관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다.

경주=이윤호 기자 (yholee@buddhopia.com)

대구 사원련 감포서 달맞이 법회

80개 사찰 1만명 참가

방생법회·달집태우기 행사
대구사원련주연합회(회장 원명)는 2월19일 경주 감포 나정해수욕장에서 80여 회원사찰 소속 스님과 신도등 사부대중1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보름 달맞이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달맞이 1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자비를 실천하는 방생법회에 이어 2부 새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달집태우기 행사로 진행됐다.

원명스님은 "방생은 자비심을 실천하는 방생중의 하나"라며 "방생의 의미를 올바르게 되새겨 일상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는 불자가 되자"고 말했다.

이윤호 기자

남양주 86번 지방도 '원효로'로 이름지어
역사유적지가 많은 전원도시로 알려진 경기도 남양주시는 최근 원효대사의 이름을 딴 도로를 지정하기로 했다. 원효대사가 머물렀다는 연유로 명명된 '원효로'는 86번 지방도가 지나는 와부읍 원리리 덕소 저수지~묘적사 구간이다.

남양주시는 5천만원을 들여 국도와 지방도에 역사유적지나 유·무형문화재의 이름을 붙였다.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사명준비에 지친 수행자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이자 귀하게 보자님과 인연을 맺자 합니다.

산삼의 효능

-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경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전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했다.
-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홍학하음은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普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
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
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150년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리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 「장뇌산삼」 사업부

전통서당에 전해오는
만성위장질환에 대한 비방

여산서당 조선생슬임보우환

만성위장질환은 몇몇 민간요법을 제외하고는 치료가 불가능하며, 잠깐은 다스려지는 것 같지만 곧 내구성 이 생겨 원상태로 돌아가기 일쑤입니다. 신비의 영약인 조선생슬임보우환은 한의사였던 서당 훈장님이 학동들의 위장 기능을 위해 토종 '조선생슬임'에 몇 가지 식재료와 약재를 첨가하여 만든 비전입니다.

위장은 기능면에서 모든 것을 소화시키는 오장의 '토'에 해당합니다. '조선생슬임보우환'을 살펴보면 뿌리, 줄기, 잎, 열매, 껍질 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순수토종만을 고집한 것은 지금 세계의 생약계가 우리의 잡초까지 연구한 것만 보더라도 확실한 선견지명이었습니다.

바로 효과가 드러나는 '체식체질'을 제외하고는, 그 효과 또한 '대단히 천천히 나타나는 것'이 비전의 특징입니다. 조금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아집니다. 한 달 지나면 얼굴에 윤기가 돌고 입맛이 당기는 것으로 위장 기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따라서 바로 편안해지는 분도 있고, 처음 얼마간은 더부룩한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공통된 것은 벅속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용은 식후 80~90알 정도를 따뜻한 물로 드시면 되나 굳이 그 양과 횟수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산서당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십시오.

- 인터넷 주소: http://myhome.shinbro.com/~yeosan
- 주소: 서울 미포구 노고산동 56-17호 102호 여산서당
- 전화: (02)322-6565

금해스님의 여 레 셴 식

오랫 동안 기다리신 소년의 선식이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킨 122종류의 약재와 순수한 토종 곡류로 각 약재마다 특성을 최대한 살린 9종9포와 오랜 배제 기간을 거쳐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15년 이상의 경험을 살려 수 천년 민족비방과 1천여 년간의 佛家 선식을 합친 한 및 기루 선식으로 복용방법이 간단하며 남녀노소 체질 등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래선식은 현대의 각종 공해로 인한 유전자 변형과 음식물 및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으로 인한 오장육부의 일체 질환과 체질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특히 간염, 간경화, 간암 등에는 놀라운 치료 효과가 나타납니다.

▶ 치료 대체효과로 본 증상 사례 ◀

1. 비, 위장 및 소화기 질환, 대장병
2. 기관지 천식, 폐암, 기관지염, 선후암
3. 비만 및 체질개선
4. 각종 초기암 및 진행암
5. 수술전후 방사선 및 항암치료
6. 병원에서 진단되지 못한 신 문 천견
7. 우울증, 정신장애, 신병 등에 관한 천견

주 문 처 0523)372-1221 / 011)564-1217

- 대 금 : 35만원
- 입 금 : 유체국 611715-0028373 예금주 : 지덕봉
-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동리 754 약사사